

<종교컬럼>

손승희 목사
캘거리 사랑의 교회 담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열왕기하(2 Kings) 17:1~6



북 이스라엘은 BC722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의 분열, 그리고 왕의 외교정책의 실패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사실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벰엘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과 산당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 외에 일월성신을 숭배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2 Kings)17:8-10

“8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땅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모든 산 위와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9절에 보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secretly did things” 비밀리에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처음에는 숨어서, 모르게 눈치 보면서 행하다가 점차로 대범하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든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묵상 큐티도 한번 안하면 두 번 안 하기 쉽고, 세 번, 네 번은 안 하다 보면 이제는 아예 안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마음에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연인들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설레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레임이 없다면 그것은 한 주간동안 하나님 앞에 설레임이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점점 둔해지자 드러내 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앗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홍수에 이어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침수와 산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말세의 징조 중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습니다.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즘 세상에서는 말세의 징조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관찮겠지, 나는 아닐거야!”라는 교만한 마음, 목이 곧아지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것들을 하나 하나 찾아내서 깨뜨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려움에 빠진 세상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무릎의 상처를 찾으십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소방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리석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일할 때이다. 불이 났다면 일반 사람들도 깨어나야겠지만 누구보다도 소방수들이 깨어날 의무가 있다. 악인들을 삼키는 지옥불은 교회가 진화해야만 한다. 교회가 잠들어 있는가? 소방수가 잠들어서 온 도시가 불타도록 방관해도 괜찮단 말인가? 사람들이 그런 소방수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들 소방수들의 죄책도 주변의 죄인들이 지옥 불에 빠져들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바이러스로, 기근으로, 홍수로 고통 하며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그 소리는 곧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세상을 섬길 기회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추악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매일 말씀 묵상하며, 15분, 30분이라도 간절히 간절히 이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귀 사탄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앗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이웃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상황에서 오히려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